스토아철학, 불교와 어떻게 닮았나?

철학가 스캇티 헨드릭스, 美 '빅씽크미디어'에 칼럼 기재



철학가 스캇티 헨드릭스는 7월 8일 '당신의 생각보다 불교와 스토아철학은 더욱 연관돼있다'는 칼럼을 통해 스토아철학과 불교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해 환기했다.

사진출처=빅씽크미디어

기독교에 영향 준 스토아학파
불교와 공통·차이점에 '주목'
금욕·실용적 측면 등 비슷해
BUT 종교와 학문 차이 존재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지는 그리스 로마 스토아철학이 불교와 공통점이 많다는 분석이 발표돼 관심이 모인다.

미국 인터넷포럼 '빅씽크미디어'에 철학가 스캇티 헨드릭스(Scotty Hendricks)는 7월 8일 '당신의 생각보다 불교와 스토아철학은 더욱 연관돼있다'는 칼럼을 통해 스토아철학과 불교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해 환기했다.

스토아철학은 키티움 출신의 철학자 제논(Zenon ho Kyprios)에서 시작된 금욕주의 사상의 줄기를 일컫는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번성했으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등이 이 사상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그리스의 스토아철학은 로마의 스토아학파와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헨드릭스는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스토아학파와 불교와의 공통점에 주목했다. 그는 공통점으로 △금욕적 성격 △감정의 근원을 내부서 찾는 것 △실용적 측면을 꼽았다.

우선 그는 불교와 스토아철학이 공통적으로 금욕을 중요시하는 점에 주목했다. 불교는 모든 것을 무상·무욕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스토아철학 역시 '금욕주의'를 내세우며 행복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물질도 필요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

또한 모든 감정은 내 안에서 생겨난다고 말하는 불교와 마찬가지로 스토아철학도 모든 감정은 내부에서 시작된다는 논지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불교는 다음 생보다 현생에 집중을 한다. 또 불교의 수행인 명상을 하기 위해 불교 신자가 돼야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실용적 측면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에만 집중하는 점'과 유사하다. 헨드릭스는 "운동선수인 아폴로 오노는 결과보다 운동 자체에 집중하기 위해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교와 스토아철학은 한 세기 동안 서로 다른 대륙서 발전한 만큼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차이점으로 헨드릭스는 △업과 윤회의 신뢰여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수행법(고통에 대한 해결법) 등을 언급했다.

헨드릭스는 "가장 명백한 차이점은 불교는 종교로 인정받고 3억이나 되는 불자를 거느리고 있지만, 스토아철학은 종교가 아니며 스스로 스토아철학파라고 선언하는 사람을 찾기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는 업과 윤회를 신뢰하지만, 스토아철학은 아니다. 이 때문에 죽음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 불교는 윤회사상에 따라 죽음 그 자체로 끝이 아닌 몸이 소멸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 반면 스토아철학은 죽은 후에는 원래의 것으로 돌아간다고 죽음을 인정한다. 이후의 삶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교는 수행법으로 선·교·염불 등을 제시한다. 이에 반해 스토아철학이 말하는 고통의 해결법은 마지막까지 이성을 따르는 것이다.

헨드릭스는 "이렇듯 불교와 스토아철학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명백한 차이점도 존재한다"며 "하지만 둘 다 위대한 사상이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위대한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 박진형 수습기자



텐진 팔모 스님은 우리 내면에 집중해야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진출처=tricycle.org

텐진 팔모가 알려주는 내면 평화 찾는 법

패션 매거진 〈보그〉, 팔모 스님 조언 소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패션 매거진 보그(Vogue) 호주판은 7월 27일(현지시간) 당황스러움을 겪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영국인 비구니 스님인 텐진 팔모(Tenzin Palmo)의 말을 통해 소개했다.

사람들은 때때로 온전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길 소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반대 현상으로 바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텐진 팔모 스님은 이에 대해 "사람들은 내적 침묵이 매우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쁘고 활동적이고 산만하게 생활한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침묵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텐진 팔모 스님은 이에 대해 특별한 시간을 내야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내면에 집중하는 것만이 하루 24시간을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팔모 스님은 "요즘에는 매우 작은 일들이 전 세계에 걸쳐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예전에는 수개월에 걸쳐 나타날 현상들이 인터넷의 발달로 급속히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에 대한 패닉현상도 빨리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며 "이럴 때 일수록 팔모 스님은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텐진 팔모 스님이 전하는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법을 알아보고 이를 실천해 보도록 하자.

조용히 알아차림을 실천할 것

하루종일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잠시 생각해보자. 지금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저 매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판단도, 분석도 할 필요 없다.

명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팔모 스님은 "우리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다. 이 호수는 매우 부드럽고 거울 같아서 우리는 매우 정확하게 사물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것

명상은 우리가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보통 인간의 마음은 경직되어 있다. 강한 습관과 판단력을 비롯해 강한 편견과 견해를 갖고 있다. 융통성 없는 생각은 내면의 평화를 빼앗는 주범이다.

멀티태스킹을 중단할 것

불교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는 한 번에 한 순간의 의식만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할 때는 당신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인식과 생각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러면 비효율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보자.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머리를 빗고, 차를 마시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푹 놓아보자.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자.

호흡할 것

우리의 마음, 호흡, 감정 상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면 "숨을 깊게 마시고 내뱉어"라고 말한다. 이것은 마음과 호흡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안다는 증거이다. 티베트인들은 "입이 말이고, 마음은 말을 타고 있다"고 말한다. 호흡을 천천히 깊게 마시고 내뱉으면, 마음도 가라앉는다. 정신이 산만해질 때마다 호흡에 집중 해보자.

이보형 객원기자

기원전 1C 불교 유적지 인도서 발견

半연꽃모양 새겨진 4개 기둥



기원전 1세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유적지서 발견된 半연꽃모양이 새겨진 4개 기둥.

사진출처=더힌두

기원전 1세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유적지가 인도 팔나두지역의 마두구라 마을에서 발견됐다. CCVA(비자야와·암라바티 문화센터)가 '후대를 위한 문화유적 보존하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바닥과 상단 부분이 절반의 연꽃 모양으로 조각된 4개의 기둥이 발견됐다고 인도 소식통 '더힌두'는 7월 13일 밝혔다.

불교 고고학자이자 CCVA의 CEO인 레디 박사는 "기둥이 불교 아라미스의 신도실이었던 파빌리온을 지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반(半)연꽃 메달과 기둥 중 하나에 새겨진 작은 브하르미 비문의 예술 스타일을 바탕으로 기원전 1세기 불교 유적지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를 통해 마두구라 마을이 사타바하나 왕권시대에는 불교부지였으며 동(東)챨루키안 왕권시대에는 자이나교의 신전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지선 수습기자

곰에 장난쳤다 생사위기 넘긴 청년

태국 사원 내 동물원서 사고 발생



태국 한 사원 내에 위치한 동물원의 곰이 먹이로 장난을 치던 방문객 나이품 프롬라띠(36)를 공격하고 있다.

사진출처=유튜브 영상 일부

8월 3일(현지시간) 태국 펫차분주 '와트 루앙 포어 라마이' 사원의 동물원 내 곰이 방문객 나이품 프롬라띠(36)를 공격했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 매체는 프롬라띠가 곰에게 장난을 치다가 봉변을 당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사원은 작은 울타리에 멧돼지 24마리와 곰을 키운다. 최근 관객들이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프롬라띠는 곰을 발견하고 밧줄 끝에 먹을 것을 달아 내렸다. 그리고 곰에게 먹이를 줄 듯 말 듯 약 올리며 장난을 쳤다.

화가 난 곰은 벌떡 일어나서 밧줄을 당겼다. 난간에 기댄 채 밧줄을 잡고 있던 프롬라띠는 중심을 잃고 우리 안으로 떨어졌다. 프롬라띠는 1분여 동안 곰에게 끌려 다니며 공격받았다. 당황한 프롬라띠의 친구들이 막대기를 곰에게 던지거나 찬물을 끼얹었지만 소용없었다.

동물원 관계자들 덕분에 겨우 우리에서 구출된 프롬라띠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며 "살아서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라고 말했다.

사원의 주지는 "곰을 비롯해 여러 동물은 최근 먹이가 부족한 탓에 예민해져 있었다. 운영상황이 열악한 수도원이 동물들을 잘 보살피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진형 수습기자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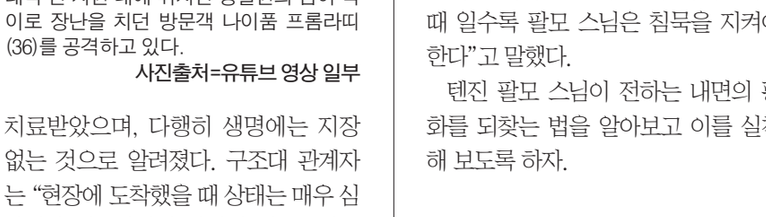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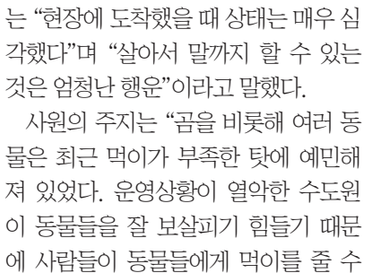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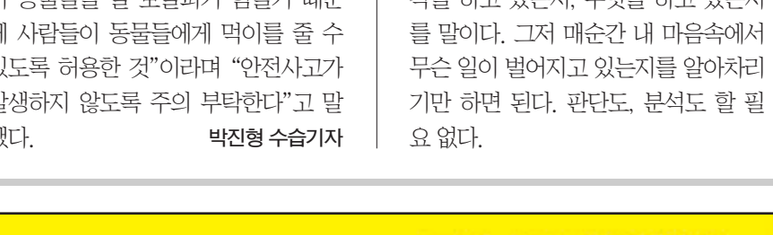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승하강장치 특허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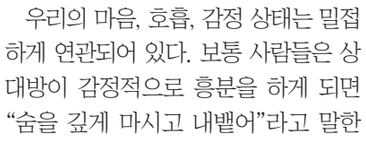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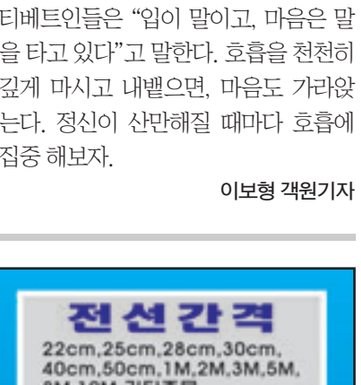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m, 6m, 7m, 8m, 10.5m, 13m, 20m, 30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